







# 해외 어학 연수 최종 보고서

연수기관 (국가명)	괌 대학교 (괌)	연수 기간	2024.06.30~2024.07.20
학과	항공서비스과	학번	2450092
이름	백여민	이메일 주소	duals1073@naver.com
학업 관련 (연수 기관 설명, 수업방식 및 구성, 해당 기관 서비스, 해당 기관 특징 및 장·단점 등)			
<p>괌 대학교(University of Guam, UOG)에서의 연수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. 첫 날에는 레벨 테스트를 통해 학생들을 각자의 영어 능력에 맞는 반으로 나누었고, 같은 학교에서 온 학우들도 몇 명씩 같은 반에 배치되었습니다. 수업은 주로 그룹식으로 진행되어 학생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. 매일 다른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, 참여형 수업이 많았습니다. 특히, 수업의 자유로운 분위기는 한국의 교육 환경과는 차별화되는 점으로, 학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.</p> <p>또 다른 장점으로 캠퍼스 내에 카페가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고, 도서관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학업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. 또 다양한 지역, 다양한 학교에서 온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시각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 있습니다. 이 외에도 자연 환경이 아름다워 학습 외에도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.</p>			
생활 관련( 의, 식, 주) 연수 국가의 특징, 주의할 점, 본인의 경험담			
<p>먼저, 괌의 대부분의 실내 공간은 에어컨 온도가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 반팔 옷뿐만 아니라, 걸쳐 입을 수 있는 긴팔 옷도 많이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. 에어컨 때문에 추위를 느끼는 일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긴팔 옷이 매우 유용했습니다.</p> <p>식생활에 있어서는 괌의 음식이 한국인 입맛에 크게 맞지 않는 경우는 없었으나, 고기나 기름진 음식이 주를 이루는 경향이 있습니다. 건강을 위해 야채나 과일을 스스로 챙겨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</p> <p>또한, UOG 근처에서 도보로 가게나 음식점을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. 주택가를 걸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개를 만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. 실제로 저희 연수 기간 동안 몇몇 학생들이 개를 마주친 경험이 있었습니다. 따라서 가급적 다인원으로 움직이거나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.</p>			
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 할 후배에게 미리 알고 가면 좋을 정보( 준비 절차, 준비물, 비상약, 추천정보, 꿀팁)			
<p>먼저, 괌 대학교 기숙사는 호텔과 달리 어매니티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므로, 뒤통과 잘 담요, 드라이기, 세면도구 등 기본적인 물품들을 꼼꼼하게 챙겨가는 것이 중요합니다. 특히 기숙사 생활에서는 세면도구와 같은 개인 위생용품이 필수적입니다. 또한, 빨래를 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므로 일회용 수건을 가져가는 것이 훨씬 편리합니다.</p> <p>비상약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. 감기약, 소화제, 지사제, 진통제 등 기본적인 약품은 물론, 개인적으로 필요한 약이 있다면 미리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.</p> <p>현지에서 이동할 때는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지만, 비용이 다소 부담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택시를 이용할 때는 인원을 모아 함께 나가는 것을 추천합니다. 비용도 절약 할 수 있고, 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.</p> <p>또한, 괌의 실내에는 에어컨 온도가 낮게 설정된 곳이 많으므로, 반팔 옷뿐만 아니라 걸쳐 입을 수 있는 긴팔 옷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.</p>			

※ 연수 기간 동안 찍은 사진 첨부 및 기타 의견 작성

기숙사/ 호텔 등	학교 캠퍼스/ 시설
	
수업 / 강의실 / 카페테리아 등	문화 체험
	
기타1	기타2
	
연수 기간 동안 느낀 장·단점 / 기타 의견 및 건의사항	
<p>광 대학교에서의 연수 기간 동안 여러 장점과 단점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. 학교 생활과 기숙사 안에서의 생활은 대체로 만족스러웠습니다. 수업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 덕분에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가 높아졌습니다.</p> <p>그러나 시내로 나갈 때의 불편함은 기숙사 생활의 단점 중 하나였습니다. 이는 호텔에 거주하는 다른 연수생들이 겪지 않은 불편함이었기 때문에 아쉬움으로 다가왔습니다.</p> <p>또한,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여러 번 '이것도 챙겨올 걸 그랬다'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기숙사는 호텔처럼 어메니티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덮고 잘 담요, 드라이기, 세면도구 등의 기본적인 물품을 꼼꼼히 챙겨야 했습니다. 다음 어학 연수생들에게는 준비물을 더 세세하게 공지해 필요한 물품들을 더 잘 챙길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</p>	